

취임 1년 맞은 임영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체계적 경영·시설관리...주민 감동서비스 실현”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정화
안전사고 감소·효율적 시설 운영...노사상생 문화 정착

“책임있는 경영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임영일 제6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임영일 이사장은 투명한 책임 경영, 변화·혁신 조직운영, 소통·화합 상생문화 구축, 안전·전문적인 시설운영, 공공성 효율성 환경 관리를 경영철학으로 삼아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섰다.

특히 신바람 공단 만들기 운동으로 ‘공단 가족의 날 운영’, ‘BEST5 키우고 WORST5 버리기 운동’ 등을 통해 즐겁고 보람차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켰다.

또 경영혁신으로 이자수의 (2023년 1억9000만원 → 2024년 3억8000만원)을 증대시켰고, 부채율을

2023년 850%에서 2024년 358%로 줄였다.

행안부 일자리 정책 분야 우수상 수상, 글로벌 인 권경영시스템 인증 등 대외 평가를 통한 경영의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취임 전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생활폐기물 수거 분야도 개선했다.

‘생활쓰레기 일일수거제’ 목표를 세워 수거 구역을 23개소(기존 20개소)로 확대했다. 접수한 민원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 관련 민원이 2023년 대비 40%나 줄었다.

아울러 안전과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안전감사실’을 신설, 전문요원을 배치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전년 대비 30% 이상 줄였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에도 앞장섰다. 각종 화



임영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취임 10주년을 맞아 주요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합행사,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 환경직 직원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사기 진작에 힘썼다. 빛고을극민체 육센터 등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 비정규 직원 (11명)을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협력 프로그램 개발, 노무전담 전문 직원 배치, 노사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2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이끌어 냈다.

앞으로 시설공단은 광산구가 추진 중인 경영진단 운영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직무중심인사관리제 도입’, ‘생활폐기물 일일수거제 정착’, ‘신규 문화체육프로그램 도입’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집중해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등 주민 감동

서비스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임영일 이사장은 “체계적인 경영시스템과 화합된 노사문화 정착,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간 아쉬웠던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변화와 혁신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일 기자 ijh415@gwangnam.co.kr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결과 발표회 성황

‘MY BODY MY SOUL’ 주제
지역아동센터 아동 50명 참여

GS칼텍스는 최근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2025년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예술교육 결과 발표회 ‘MY BODY MY SOUL’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여수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학부모를 비롯해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여수시의회 의원, 배수봉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기웅 GS칼텍스 SHE/대외협력실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는 GS칼텍스가 예술마루의 문화 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현대무용단



GS칼텍스는 최근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예술교육 결과 발표회 ‘MY BODY MY SOUL’을 성황리에 마쳤다.

‘앤비유어스댄스컴퍼니’와 함께 기획한 교육 프로젝트 밑에서 춤으로의 결실이다. 여수지역 7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50명이 4주간 무용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준비했다.

참여 아동들은 몸 쓰는 기초부터 창작 안무, 의상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공연은 조별 특색 안무, 무용수와 함께하는 단체 퍼포먼

스로 구성됐으며, 아이들은 스스로 고른 선글라스와 만든 의상을 입고 무대를 가득 채웠다.

GS칼텍스와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예술교육을 마친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중 GS칼텍스 여수공장과 한화 아쿠아플라넷 견학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철도공사 전남본부 순천역봉사회 ‘해피트레인’

SOS어린이마을 청소년 30명...여수엑스포 관람 등 진행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순천역봉사회는 최근 지역 꿈나무를 대상으로 해피트레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하계휴가 기간을 맞아 실시한 이번 봉사활동은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순천 SOS어린이마을 청소년 약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순천역봉사회는 취약계층 아동들과 열차 이용 체험과 여수엑스포 아쿠아플라넷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관련 업무를 소개하는 진로상담도 병행, 미래의 꿈나무가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순천역 관계자는 “어렵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들이 기쁘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해 ESG경영 실천과 기업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일 기자 looks@gwangnam.co.kr

“호주서 외국어 공부·산업체 실습...글로벌 성장”

교육부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2명 선발

동강대학교 학생들이 호주에서 외국어 실력을 높이고 현지 산업체 경력을 쌓으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

동강대 간호학과 이혜준·정하연(이상 2년)씨는 최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자로 선발됐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공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전공 실무능력을 키우고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동강대는 지난 2010년부터 ‘글로벌 현장학습’에



동강대학교 이민숙 총장(사진 오른쪽)이 올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간호학과 정하연(사진 왼쪽)·이혜준씨와 하숙 국제교류원장을 격려하고 있다.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2022년에는 참여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올해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혜준·정하연씨는 오는 30일 호주로 출국해 총 16주간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 시드니 그리니치 컬리지에서 4주간 어학

교육을 받고 로열 이스트우드 메디컬센터에서 12주 동안 산업체 현장 실습을 소화할 예정이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민수 기자

동일미래과학고·승의과학기술고

송원대학교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는 지난 4~8일 동일미래과학고와 승의과학기술고 학생 8명을 대상으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취업동아리 1학기 상호학점인정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2025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대학 탐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뤄졌다.

상호학점인정제는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 전에 미리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입학 후 학점으로 인정 받는 제도로, 조기 전공 체험과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 교육은 △철도교통의 미래 전망 및 국가 발전 기여도 △철도차량 운전 기초실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송원대가 전국 철도대학 중 유일하게



보유한 8200호대 전기기관차(FTS) 운전실습, 수도권 전동차 운전, 철도교통관제 실습 등 다양한 현장 장비 체험이 포함돼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최수대 총장은 “고교-대학 간 교육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조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철도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대산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학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동봉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

232-4953.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몰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직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ონსე (음력 6월 19일)

48년생 거둬들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
60년생 클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72년생 뜻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84년생 예견된다면 회피하는 것이 옳다
96년생 편견없는 시각이 필요하다

51년생 득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63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다
75년생 힘들더라도 부부 함께 극복해 나갈 때
87년생 몸과 마음 고달피도 노력한 보람있다
99년생 돌파구가 보인다

54년생 평상시에 가졌던 의문이 풀린다
66년생 늦었다고 생각 말고 다음을 준비
78년생 아는 대로만 행하면 그만이다
90년생 이상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

57년생 거래상의 많은 이익이 생길 것
69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가능성 높다
81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
93년생 하늘도 귀하의 의지를 알고 돕는다

49년생 허던 일이 영길 수 있으니 기다리자
61년생 모험성 있는 일도 성공할 것이다
73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
85년생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
97년생 이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

52년생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
67년생 금전과 자존심이 힘들게 하는 날
76년생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88년생 눈에 띄지 않게 호전되어 가고 있다

55년생 아직도 유혹하니 약속을 지켜라
67년생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길하겠다
79년생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라
91년생 어려운 임장이지만 민사행동 한다

58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
70년생 노상에서 찢리고 베이는 것을 주의
82년생 판도에 도움 되겠다
94년생 연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덕이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
62년생 공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74년생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
86년생 조금씩 버리지 말고 때를 기다리자
98년생 돈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다

53년생 감미로운 기쁨 있겠다
65년생 지금도 늦지 않았다
77년생 돈소문으로 명예훼손을 당한다
89년생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56년생 욕심을 버려야 할 것
68년생 과욕하지 말고 매너를 지키도록 하라
80년생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
92년생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지 마라

59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
71년생 어려웠던 미신이 풀린다
83년생 귀하의 운이 너무나도 길하다
95년생 뜻하지 않은 금전이 생긴다